

연중 제28주일

기도서 457면 (C해)

제1독서 : II 열왕 5, 14-17

제2독서 : II 디모 2, 8-13

복음 : 루 가 17, 11-19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루가 17, 15-16).

□ 강론



각자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자!

박종근 신부

아직도 관준민비의 사고방식과 사농공상이라는 봉건시대의 계급관념과 가부장제 사회제도의 유습이 잔존해 있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사상 고양과 실천은 고무해야 할 일이며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인간을 인간 이하로 타락시키는 배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현 사회에서 만민 평등사상 실천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부르짖고 신장시키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사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위치를 잘 알고 그 위치에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광대무변한 우주 안에서 태양에겐 태양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다. 태양은 지구를 비롯하여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혹성들과 함께 태양계를 이루어 은하계 안의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공전하면서 빛과 열을 발산하고 있다. 지구의 위성인 달도 일정한 자기 궤도를 따라 지구를 돌며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지구를 비추고 있다. 수많은 별들도 자기 우주공간 안에서 자기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이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에게 자기 고유한 위치를 설정해 주시고 역할을 부여해 주신다. 이것이 창조주 하느님의 섭리요 창조주 하느님의 질서이다. 만일 태양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역할을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끔찍한 현상이 벌어지리라...

이제 인간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하느님은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위치를 설정해 주셨고 만물을 당신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 하느님 당신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을 당신과 대화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의 위치와 당신의 뜻을 따르는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 또한 하느님은 인간을 한 사람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을 창조하시어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다. 가정공동체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역할,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와 가정의 위치와 역할, 국가 공동체에서 시민과 대통령을 위치하여 공직자들의 위치와 역할, 교회공동체에서의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다.

이제 각자는 만물과 자기와의 관계에서의 위치와 역할, 하느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위치와 역할, 공동체를 이루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각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잘 알고 그 역할을 잘 파악하여 성실히 수행하자! 흔히 쓰는 말로 주체파악을 못하여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로움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일실천주교회)



전격 Z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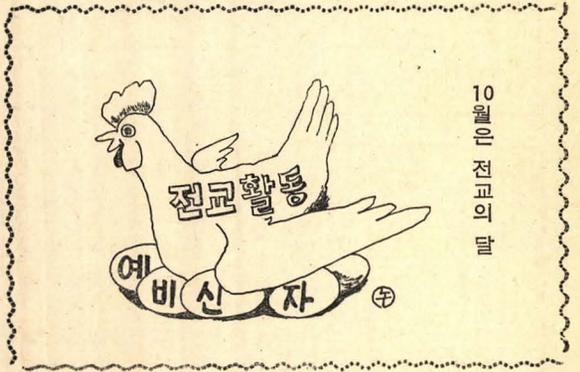
새벽 0시10분, 어느 오락실에서 살인사건이 났다. 그것도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서울 북판에서, 20대 청년들이 배를 지어 물러가 오락실 종업원을 죽인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다. 그런데 놀랐다 못해 어이가 없는 일은, 이 무서운 사건을 목격한 오락실 여사무원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답변과 그 뒤의 일이 다.

놀란 여사무원은 사건현장에서 20여 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던 30여명의 전경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경비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으니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건이 난 1시간 뒤의 상황은 「오락실 입구를 막고 출입만 통제할 뿐 박세를 병원에조차 옮기지도 않았다.」 아무리 아시안 게임을 위한 경비가 중요하다지만, 정말로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이래도 되는 것인가!

법질서 유지 재단이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내용을 주제로 다루는 미국의 텔레비전 영화가 있다. 지난 주에는 독성 화학물로 나쁜 음모를 꾸미는 일당을 처치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 마이클은 눈앞에 있는 범인을 놓치면서도 당장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영화이기는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도 않고, 선의의 시민을 지키는 일이 라면 상사의 명령조차 거부한다. 어쩌면 거부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상사에게 설득시켜 승락을 얻어낸다. 참으로 인간미 넘치는, 멋진 인간승리다.

오락실 사건도, 조금만 일찍 손을 썼더라면 한 생명이 죽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여기에 경직된 우리 사회의 아쉬움이 있다. 누가 그 전경들을 그렇게 묶어 놓았는가? 언제까지 우리는 각본과 연습에 의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행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가! 자울성이 아쉽다.

숲 정 이 산책



로사리오 성월

로사리오(Rosario) 기도

로사리오는 묵주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는 라틴어(Rosarium : 장미 꽃다발)에서 유래한다. 또 이를 매피신공(玫瑰神工)이라고도 하는데 매피란, 장미과의 낙엽 관목으로서 향기나는 때썰레의 일종이다. 이는 주로 중국에 많이 있으며 매피라는 말도 중국에서 사용한다.

초세기 이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뜻으로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쓰는 관습이 있었다. 그리고 초대 교회 신자들은 기도 대신에 장미꽃을 바치기도 했는데, 특히 순교자들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순교자들은 팔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목이 가 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다. 그런데 신자들은 거룩하게 몸을 바친 이들이 썼던 그 장미관을 한때 모아 장미꽃 한 송이마다 기도를 한 가지씩 올렸다. 또한 에집트의 사막에 숨어서 기도하던 은수자들은 머리에 쓰는 관처럼 둥글게 작은 이삭이나 돌을 엮어 굴리며 기도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신자들은 시편 150편을 의우기 위해 구슬을 150개를 꿰어 사용했으며, 나중에 주의 기도나 성모송을 할 때에도 사용했다. 이처럼 묵주의 기도는 여러 가지 관습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엇을 사용하든 다만 영적인 꽃다발을 바친다는 데에는 거의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13세기경 알비파 (Albigensium) 이교인들이 Toulouse 지방을 침략할 때 성 도미니코(1221)는 “성모님께 열심히 기도하자. 로사리오 기도는 마리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성모님께서 성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으로 알려졌다. 성모님이 1846년 La salette에서 발현하셨을 때 성모님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발에다가 오색찬란한 꽃으로 만든 관을 두르셨는데, 이 꽃들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모후께 바치는 장미꽃을 의미한다.

1858년 루르드에 발현하셨을 때 묵주를 가지고 오셔서 벨라렛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후 1883년 교황 레오 13세께서 회칙을 통하여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의 기도를 바칠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다.

특히 교황 레오 13세는 10월을 로사리오 성월로 정하고 성모 호칭기도에 「지극히 거룩한 로사리오의 모후」라는 호칭을 추가하여 로사리오에 의한 신심을 장려하였다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아름다운 기도를 많이 드리자.

성서교실 60

그들 중 한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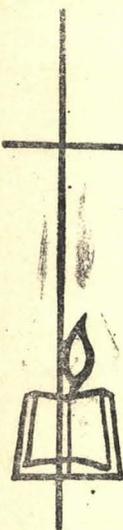
그 발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루가 17:16).

성서 가운데 나병에 관한 기사(記事)가 많이 나온다. 나병은 죄에 대한 하느님의 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이 병의 「치유」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되라」는 특별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이런 용어도 나오지 않는다(루가 7:1~10 참고).

외국인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의 치유를 놓고, 예수께 와서 감사를 드릴 때, 예수는 나머지 유대인들 9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심히 개탄하였다.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열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17:17). 이에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의 신앙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17:19)고 하였다. 이것은 나병이 열 사람 다 나왔지만, 참다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느님의 영광에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다. 사실 아홉 사람의 경우,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17:13)라고 청했던 거기에 신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신앙은 꼭 고백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고백이 없다 하더라도 신앙은 신앙인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치유된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한 감사, 그것은 인간 최고의 덕(德)인 것이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개짐승만도 못한 존재이다. 감사는 상대방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는 하느님께 향하게 될 때 여기에 처음으로 「구원의 신앙」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께 향하게 되는 감사, 이것을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승복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엄위에 굴복하는 것이다.

감사는 감사받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다. 하느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도 그분 영광의 반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법사에 감사하라」(1테살 5:18).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고려 안경원

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오로 서원 옆
☎ 72-5770
김 홍균(배드로)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학장 · 드레스마춤 · 대머
학생 수시 모집
해의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2496 8653

*혼수(회갑)옷감 | 도매상
*특수 파티복
*고급 칠구류
*각종 솜 일체
*커넥지

서울 주 단
☎ 0453 5095
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이리 금강안경원

교우 우대함
☎ 54-5130
(상업은행 옆)
김 강 석
김 숙 자(마리아나)



밝히오리다

제 5호 1986. 10. 12 / 편집·발행 : 50주년기념 중앙위원회 홍보부 © 0041~3

“ 새로이 탄생한 전주교구는 조선에서 조선인 성직자들에게 맡겨져 사목될 첫번째 교구이며..... ”

문서 2125-27

포교성성 교령

본 포교성성은 주님의 섭리에 따라 교황 비오 11세께서 주신 특별권한에 의하여 김양홍(스테파노)신부를 전주 교구장으로 임명하고 성무를 원활히 집행하도록 아래 명시된 특별 권한을 부여하오니 별지에 수록된대로 교회법과 본 성성에서 반포한 여러 가지 특별 지침에 따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937. 4. 13.

로마성청 포교성성 장관

푸마소니 추기경

주일 교황 사절관 174-37

도우교우 1937. 4. 17

지극히 경애하올 신부님

영광스럽게도 당신의 소속 주교님각하께서 신부님과 조선 성직자단에게 전주교구가 새로이 탄생되고 당신이 첫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명철하신 드망주 주교께서 시작하시고 또한 열심히 준비하신 이 신설 사업이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오늘에 완성을 보게 된 것을 나는 큰 기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새로이 탄생한 전주교구는 조선에서 조선인 성직자들에게 맡겨져 사목될 첫번째 교구이며 또한 파리 외방 전교회 회원들이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므로 빛나는 성과를 얻은 조선인 성직자들에 대하여서도 성청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당신이 하시는 일과 성직자 개개인이 당신의 사목권 아래에서 주의 도우심과 평생 동정하신 마리아와 조선 복자들의 기도와 공로로 당신의 고장 사람들의 구원에 알맞는 주의 사도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내내 전능하신 주님께서 당신께 안녕과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당신의 형제 교황사절
로끌레시엔시 대주교
바오로, 마렐라

전주교구장 김 스테파노 각하

해설

전주교구가 로마교황청 포교성성으로부터 한국인 자치교구로 설정받고 동시에 김양홍 신부가 교구장으로 임명된 것은 1937. 4. 13. 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때 한국교회까지 겸직하고 있던 주일교황사절이 1937. 4. 17. 직접 김신부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주일 교황사절은 이 공문을 한국에 발송하면서 같은 날 미리 전라북도 관할 주교인 대구교구장에게 전보로 알렸다. 전주교구가 한국인 자치교구로 설정된 것은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다. 이 준비로써 드망주 주교는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의 허락과 로마 포교성성의 승인을 받아 1931. 5. 10. 전라북도 감목대리구를 설정하였고 전라북도를 한국인 신부들에게 맡기며 외국인 성직자들을 철수시켰다. 물론 감목대리구가 설정된 것은 전라북도가 처음은 아니었다. 서울교구는 1928년 황해도를 감목대리구로 신설하고 한국인 신부를 감목대리로 임명한바 있었으나 끝내 교구로 승격되지 못하고 1942년에 폐지하고 말았다.



10만인 성지 순례

도보순례대사특전

1. 전주순정이 → 치명자산
 2. 여산순정이 → 천호성지
- ※ 고백, 영성체, 교황지함기도

전주교전주교구
교구장 박정일 주교

I. 안내

기간: 1986. 9. 1~1987.10. 31 까지

때 : 매주 토·일요일

오후2시: 축복예절

오후4시: 미사

장소: 1코스: 전주 순정이→치명자산

2코스: 여산 순정이→천호성지

교통편: 1) 전주에서 여산은 전주터미널에서
여산경유 논산행 직행버스로 1시간
소요.

2) 천호에서는 오후 4시 30분과 6시
에 전주행 버스가 있으며 고산 천
주교회 버스를 상비 대기시켜 순례
를 돕고 있습니다.

*본당이나 단체에서 순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구청 사목국에 사전 연락을 바랍니다.

*순례자 모두에게 성지순례 예식서, 일련번호
가 있는 메달을 현지에서 배부합니다.

*주교님 한대사 특전에 관한 조건은 예식서에
있습니다.

II. 순례 현황 (9월)

주간	내용	순례인원	헌금액
1		2,810명	2,003,750원
2		822명	758,980원
3		782명	519,660원
4		3,607명	2,516,000원
계		7,021명	5,798,390원

50주년 기념사업 1차 헌금현황

1986. 9. 28. 현재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는 교구적 대역사에 동참하는 정성어린 헌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구를 위한 마음의 표현인 이 헌금은 우리교구의
기념사업을 위해 뜻있게 쓰여질 것입니다.

로마보조(\$35,000)	30,611,000	천호공소 순례헌금 보유	800,000
성지순례헌금	8,191,000	천호공소 성모회 십자가건립기금	2,000,000
캐나다교포 사목교우일동	1,298,000	전주교구 수녀연합회	751,000
서울성소후원회 송호림회장의 1차헌금	5,250,000	군산둔용동 교우 피정의집 헌금	1,000,000
재경50주년 준비위원회 미사봉헌예물	873,000	서울교우 치명자산 개발헌금	1,000,000
서울 백요안나 가족	3,000,000	전주교우 십자가의길 헌금	3,000,000
고산 박병준신부 보유금	7,000,000	전주교우 성모상 건립금	1,000,000
전주교구 푸류실료 사무국	3,000,000	계	68,774,000



교 구 소 식

- ☆ **축! 견진(19일)**: 무주천주교회, 19일 10시, 주례-박정일 주교님
- 1. **재정참사회**: 13일(월)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 2. **교구 혼인법원**: 14일(화) 오후 2시, 장소-교구청
- 3. **전주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10월 월례회의**: 13일 오후 6시
장소-가톨릭센터 교리교사연합회 사무실, 대상-각 본당, 각 지구 회장단
내용-전주교구 교리 경시대회
- 4.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사용자 교육**: 14일 오전 10시~12시
① 교육내용-생식생리와 결핵관찰법 슬라이드 교육
② 대상-임신을 원하거나 피임을 원하시는 분(미혼자·부부 환영)
③ 장소-가톨릭센터 2층 행복한 가정운동(3-5098)
※ 단체교육도 환영하오니 신청바람
- 5. **10월중 레지아 회의**: 19일 오후 2시, 장소-전동천주교회
참석대상-산하 평의회(교미시움·푸리아) 및 직속 브레시디움 전간부
- 6. **섬소자 모임**: 26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내용-영화 포름
- 7. **섬소의 기사회원 연풍(충북) 성지순례**: 11월 1일(토) 아침 7시, 출발-전동성당
회비-5천원, 경유-수안보 온천, 접수-효자동, 전동천주교회 사무실
※ 점심 각자 준비, 당일 미사있음
- ◎ **홍보국에서 알림**: 각 본당 순정이 소식 담당자님들께서는 정해진 도착요일(화요일)을 잘 지켜 주십시오
- ※ **축! 영명**: 성 에르와르도(13일) 김의철 신부, 성 갈리스도(14일) 정태현 신부님

가톨릭 방송안내 C. B. S (기독교 이리방송국) 1314KHz

1. "꿈과 음악 사이에" "밤의 명상": 매일 밤 0시 20분
담당: 김준호 신부, 양경배 신부, 김의철 신부, 윤양호 신부, 최상범 신부
2. "오늘을 보람있게"-C. B. S 칼럼: 매주 화요일 아침 9시, 담당-김동준 신부
많은 청취 바랍니다

10만인 성지순례(오후 2시~5시)

일	요일	1코스: 전주 순정이 → 치명자산		2코스: 여산 순정이 → 천호 순교자묘지	
		담당신부	봉사자	담당신부	봉사자
12	일	양경배 신부	연규식·양민우	김의철 신부	김성균·이영미
18	토	권이복 신부	김진면·김혜경	이수현 신부	전종희·이명숙
19	일	최상범 신부	김성균·이영미	윤양호 신부	연규식·양민우

※ 가정기도 독서: 시편 126:1~6 요한 9:1~5

잡 관!

☆ 금메달 감,

좋은 일, 착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 더욱 마음 흐뭇할 때가 있다. 지난 9월 27일, 이리 주현동(주임: 이수현 신부) 본당에서는 본당 사목회 사회복지분과 주관아래, 본당 엄마들의 모임인 「성모회」에서 「정박아와 장애자를 돕기 위한 일일차집」을 열었다고- 적지않은 당일의 수입 전액(813,950원)을 교구 사회복지회를 통해 장애 작은 자매의 집과 전주 무지개의 집에 각각 전달, 장애자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는 소식이 다. 금메달 소식이 한창인 요즘, 전혀 다른 금메달감 같은 소식이 더욱 마음 흐뭇하다.

☆ 사랑의 다리를-

교구 사회복지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사랑의 다리 놓기」 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다양한 형태로 소의되고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함께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우리 교구 소관아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작은 자매 집, 무지개 가족의 나환자 영세민, 병자, 불우아동, 청소년, 노인들을 위한)을 돕는 운동이다. 현재 1,600여명 회원들이 김환철 신부(교구 총대리) 지도아래 매달 모임을 갖고 월례미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 사랑의 다리 회원이 되실 분은 [520] 전주시 전동 2가 77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5290)로 연락바랍니다.

요심이 (688) 김병오

김추기경님이 한국에서 반미 데모를 하는 것을

미국이 현정권을 지나치게 옹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는데 단 신문에서는 한마디도 없으니...

가톨릭 신문사요? 그 기사 진짜입니까?

독서의 계절

하느님의 말씀과 양서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쌓읍시다.

- *서 적 *카세트
- *음 반 *비디오
- *슬라이드
- *상 본·포스터

성바로 서원

개원 오전: 9시~7시30분
일요일: 오전 10시~4시
※ 매달 마지막 일요일은 열지 않습니다.

☎ 3-3398

『알리는 글』

정의평화위원회는 이 땅의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금을 필요로 합니다.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번호
조흥은행 702-1-021302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씨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부안 신영근치과의원

원장: 신영근
(프란치스코)
☎ 2-6390
부안 시외버스터미널 옆
현대상호금고 2층

축! 결혼

신랑: 문명철(다마스)
신부: 이미경(가타리나)
주례: 김진소 신부
일시: 10. 19(일)
오전 11시30분
장소: 전주 전동성당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총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올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1. 금주는 성소주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소(결혼, 평신도직)와 특수성소(성직, 수도직)에 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주간입니다.
 2.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신축기금 속히 납부합시다: 아직 신축기금을 못내신 가정에서는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봉헌하여 성전건립에 협조합니다.
 4. 감사합니다: 보좌신부님 영명축일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공소 순회미사: 18일 저녁 8시, 신교리공소
 6. 축! 레지오 마리아에 탄생 "로사리오의 모후" 단장-정월용, 부단장-이혜숙, 서기-이강일, 회계-박옥혜
 7. 순결의 모후pr 간부 이동: 단장-김제정, 부단장-이서순, 서기-김복성, 회계-서문일순
 8. 금주전례: 해설-전병구, 독서-봉헌-최제인 부부 신자기도-윤석연 부부, 촛불봉헌-안재홍 부부
차주전례: 해설-임영빈, 독서-봉헌-배기창 부부 신자기도-김진희 부부, 촛불봉헌-백종엽 부부
- ※ "대견회" 발기모임: 16일 저녁미사 후 30~40대 형제들의 모임을 갖게 되니 참여바랍니다
- ※ 미사시간 변경
평일: 새벽미사-6시, 저녁미사-7시
수일: 오전 6시, 10시30분, 오후 3시, 5시, 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545,940원 교무금: 289,300원
지난주 신축금: 45,000원 2차헌금: 170,920원
아파트 봉헌금: 211,255원 교무금: 344,000원
아파트 신축금: 90,000원 2차헌금: 80,57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1. 목주기도 10만단 봉헌: 1,900만 봉헌
 2.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민첸시교회: 꾸리아 회합후
 3. 부녀회: 16일 오전 10시
 4. 중·고학생회 부안성당 학생회와 친선체육대회 19일 9시 제미사 후 출발
 5. 예비자 봉헌: 31일까지 1분씩 봉헌하세요
 6. 전교주일 2차헌금: 19일(다음주일)
 7. 환영: 황윤태(4명) 다3가 120-1
 8. 가정방문
15일-다2반 오후 2시, 반미사 오후 8시30분
16일-진2반 오후 2시, 반미사 오후 8시30분
17일-다3반 오전 10시, 반미사 오후 8시30분
 9. 50주년 기념행사 및 본당 공사헌금
100만원-조성호, 50만원-익명, 30만원-이병현, 15만원-최인의 의탁pr, 10만원-익명·박성희·익명·안운정·이봉수·윤순호·익명·최규옥·안명자, 5만원-익명·박순자·익명·임금봉·익명, 3만원-안복철·장은순·박차수·전정수, 2만원-안정숙·유재식·윤옥근·양성남·김모니카·조금순·김금자·고인순·이옥배·안수환 1만원-이복순·이옥배·서석자·이순례, 5천원-김동연, 2천원-양세시리아,
계-3,467,000원, 누계-25,177,000원
 10. 축! 결혼: 12월 12시
김익환(방지거 사베리오), 이해경(헤레나)
19일 12시: 김영선(프란치스코), 이경숙(테지나)
19일 13시: 김재영(베드로), 홍성경(보나)
19일 14시: 이윤재(안드레아)군, 김양미(글라라)양
 11. 금주전례: 해설-정윤주, 독서-①황마리아나②이갑진, 봉헌-유두석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유영귀 ②오장수 봉헌-김수영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8,230원 교무금: 454,750원
군인주일 2차헌금: 113,28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매주 토요일 저녁미사 후 목주기도 바칩
1. 제대회: 공식미사 후
 2. 축! 영세식: 다음주 공식미사 중
 3. 영세자 모임: 이번주 수요일(15일) 저녁미사 후
 4. 추수감사제·우정의날: 다음주 공식미사 후 도시락 지참하세요
 5. 전례교육: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6. 환영! 전입: 김옥자 가족(2명) 마지 용정 장진태 가족(7명) 반월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 순정이 은인을 찾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6,410원 교무금: 195,000원
2차헌금: 45,6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참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성심회: 13일 오후 2시
 2. 프란치스코 행재회: 오늘 오후 1시
 3. 반장님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성모회: 19일 공식미사 후
 5. 예비자교리: 학생-토요일 오후 6시, 일반-일요일 공식미사 후·화요일 7시30분 평화동성당-토요일 오전 10시
 6. 금주전례
본 당: 해설-김은경, 독서-①김한기 ②진성복 봉헌-민병석 부부
2성당: 해설-문치규, 독서-①김광택 ②권학열 봉헌-박환옥 부부
차주전례
본 당: 해설-김배근, 독서-①장현주 ②강기호 봉헌-유용산 부부
2성당: 해설-박병환, 독서-①정형석 ②오수환 봉헌-김필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본당-278,050원 2성당-129,500원
계-407,550원 군인주일 특별헌금: 102,730원
교무금: 211,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모
레지아사무실 83-5085번

1. 자모회: 공식미사 후
 2. 소년 꾸리아: 오늘 오후 1시30분, 사제관 2층
 3. 성화회: 레지아: 다음주
 4. 병자봉성제: 17일 환자있는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5. 감사: 거양성체 중-성가정회 기증 50주년 헌금-김치삼 신부(30만원), 배천권(50만원) 방춘철(15만원), 김병오(30만원), 김경철·배양길(각 10만원), 이경순(5만원), 유순이·양혜정(각 3만원) 최병일(2만원), 탁병택(50만원)
※50주년 사업비 신입-오늘 미사후에 신입바랍니다
 6. 전동 꾸르실리타 옥외 울드레아: 무사히 마쳤음
 7. 다음주일은 전교주일: 특별헌금 있습니다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오경미, 독서-①최정식 ③이덕수 8시 30분: 해설-방유경, 독서-①김진규 · 조봉기 공식미사: 해설-백홍자, 독서-①정우진 ②신일균
- 지난주 봉헌금: 1,221,270원 교무금: 970,000원
군인주일헌금: 343,79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미사시간 변경: 19일부터 ①새벽미사-6시 ②저녁미사-7시
 2. 수오 섬세감각: 출애 1장~15장
 3. 글라라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본당 울드레아: 21일 오후 8시30분 장소-본당 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571,625원 교무금: 524,000원